

(10) 주차 학습내용

관련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수업내용)		
자연적 관광자원		명승지 . 경승지 . 천연기념물		
수업 내용	관련지식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승지 ○ 경승지 ○ 천연기념물 		
	실습내용 (실습절차 및 지도내용)	없음		
	실습결과 및 피드백 방안	없음		
	이론수업내용 (해당주차에 이론수업이 포함되는 경우 작성)			
준비물 (재료 및 도구)	재료(도구)명	규격	필요량	비고
	전자교탁		1	
	빔 프로젝트		1	

명승지 . 경승지 . 천연기념물

명승지

명승이란 예로부터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경승지로서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크며, 자연미가 빼어나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형성과정에서 비롯된 고유성. 희귀성. 특수성이 큰 곳이다. 명승을 경관적 요소로 구분하면 산악경관, 계곡, 폭포경관, 하천경관, 호소경관, 도서경관, 해안경관, 수계경관, 고원. 평원경관, 암벽경관, 식생경관, 온천경관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명승은 지방지정문화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문화재청에서 경치가 뛰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명한 건물이나 꽃. 나무. 새. 짐승. 물고기. 벌레 등의 서식지, 유명한 경승지. 산악. 협곡. 해협. 곳. 심연. 폭포. 호수. 급류 등 특색 있는 하천. 고원. 평원. 구릉. 온천지 등을 명승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승 제1호 소금강은 산수의 경치가 금강산을 축소했다고 하여 소금강이라 부르고, 오대산국립공원의 명승지이며, 명승 제8호 백령도 두무진은 서해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 북서쪽에 있는 포구이다.

경승지

경치가 빼어난 지역으로 유사하게 쓰이는 명승지보다는 더욱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를 가진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명승지로 쓰이나 경승지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경승지는 산지가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금수강산으로 일컬을 만큼 경치가 빼어나 곳곳에 절경과 경승지가 많다. 우리 조상들은 제아무리 빼어난 경치라도 하나둘쬼으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지 여럿을 한데 묶어 무슨무슨 12경. 10경. 8경. 5경. 3경 등으로 부르는 것이 많았다. 요새말로로는 이것이 하나의 관광단지가 되는데, 이들 경승지의 묶음은 특히 8경이 많다. 자주 불리는 대한8경. 관동8경. 단양8경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팔경 (大韓八景: 일명 조선팔경)

우리나라 전역을 대표하는 명소 여덟 곳이며 금강산 일만이천봉, 한라산 고봉, 석굴암 해돋이, 해운대 저녁달, 백두산 천지, 압록강 뗏목, 부전고원(북한 한남), 평

양 부벽루(모란봉)를 8경으로 꼽으며, 다섯 곳이 북한에 있다.

관동팔경 (關東八景)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여덟 곳의 경승지로 통천의 충석정, 고성의 삼일포, 간성의 청간정, 양양의 낙산사, 강릉의 경포대, 삼척의 죽서루, 울진의 망양정, 평해의 월송정을 들어 관동팔경이라 이르나, 월송정 대신 흡곡의 시중대(侍中臺)를 넣기도 한다.

관동8경은 정철의 관동별곡으로 더욱 유명한데 관동지방, 즉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경승지들이다.

단양팔경 (丹陽八景)

충주댐으로 8경 중 4경이 수몰 때문에 모양이 바뀌고 있으나 오히려 새로운 모습으로 그 진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단양과 충주의 선상관광으로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관서8경, 규모는 작으나 충청북도 영동군의 양산8경, 월악산 국립공원의 월악8경, 충청남도 금산8경, 한 지역의 사찰내8경 혹은 강동8경, 강서8경 등 여러 곳이 있다.

관광에는 인상이 중요하다. 관광단지나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으로 지정만 해도 인상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를 보면 우리 조상들은 경승지를 그냥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8경, 10경 등으로 지정하여 그곳 관광지의 인상을 높여 나갔으니, 관광의 지혜와 선견지명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경승지가 옛날의 점적인 것과 선적인 것에서 집단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관광활동 폭이 공간적으로 넓어졌고, 또 다양한 활동으로 관광의 모습이나 취향이 바뀌어 가기 때문이다. 지금도 점적, 선적인 경승지가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의 대표적인 것으로 최근에 여러 여행가들이 ‘한국의 10대 절경’을 공동으로 소개하였는데, 북한산의 능선, 설악산의 수렴동계곡, 설악산의 토왕성 폭포, 한라산의 아열대 숲, 북한산의 인수봉 기암, 마등령에서 외설악을 바라보는 전망, 한없이 펼쳐지는 만경평야, 영월 청랭포의 강 경치, 홍도의 섬 풍경, 삼척의 관음동굴을 들고 있다.

이들 10개 가운데 국립공원이 속하는 것이 7개 지역으로 역시 한국의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빼어난 경승지임에 틀림없다. 이들 거대한 경승지는 자연적 경관이 원초적인 관광자원이 된다.

대관령의 동쪽이라 하여 ‘관동’ 이라는 말이 붙여졌지만, 현재는 망양정과 월송정이 경상북도에 편입되었고, 삼일포.총석정.시중대는 북한 지역에 들어있다. 본래 강원도의 동해안 지방에는 명승지가 많기로 유명하지만, 특히 이들 팔경에는 정자나 누대가 있어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풍류를 즐기고 빼어난 경치를 노래로 읊었으며, 또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많은 전설이 얽히게 되었다.

고려 말의 문인 안축(安軸)은 경기체가인 ‘관동별곡’에서 총석정.삼일포.낙산사 등의 경치를 읊었고, 조선 선조 때의 문인이자 시인인 정철은 가사인 ‘관동별곡’에서 금강산 일대의 산수미와 더불어 관동팔경의 경치를 노래하였다. 또, 신라 시대에 영랑,술랑,남석랑,안상랑이 삼일포와 월송정에서 놀았다는 전설도 전한다.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자연현상 중에서 민족의 역사성을 확인시켜 주는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가치가 있거나 경관이 특별히 아름다우면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동물은 서식지와 번식지, 도래지까지 포함한 개념이며, 식물에 대해서는 자생지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천연기념물에는 동물, 식물, 지질, 광물(천연동굴 포함), 천연보호구역 등이 있다.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법률에 따라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학술상 가치가 높은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포함)·식물(자생지포함)·광물·지질과 그 밖의 천연물을 말하며,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원칙적으로 항상 변경이 허락되지 않는다.

천연기념물이라는 용어는 1800년 독일의 알렉산더 폰 훔볼트가 처음으로 ‘Naturdenkmal’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말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용어로 정착된 것은 산업혁명이 진전되어 자연파괴가 누적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이며, 자연파괴를 걱정하여 자연보호를 외치게 된 것은 거의 같은 시기의 영국·미국·독일에서 였다. 일본에서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개념이 1906년 소개 되었고, 1919년에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전법이 제정·실시 되었다.

천연기념물 지정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크게 4개 유형인 식물, 동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2017년을 기준으로 천연기념물은 총 552점이다.

식물은 노거수가 168점으로 제일 많고 마을숲 22점, 희귀종 19점, 자생지 26점,

수림지 26점 등이다.

동물분야의 78점은 서식지 9점, 번식지 14점, 도래지 6점, 조류 27점, 포유류 10점, 어류 6점, 곤충 6점 등으로 되어있다.

지질 및 광물분야는 74점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형 · 지질 30점, 동굴 18점, 화석 21점, 암석5점 등이다.

금수강산의 제 모습을 보존하기 위하여 넓은 지역을 보존하고 있는 천연보호구역은 남쪽에서부터 한라산, 홍도, 설악산, 대암산 · 대우산 및 향로봉 · 건봉산 등 11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다.

동물

특정동물의 서식지로는 광릉(크악새), 울릉도 사동(흑비둘기), 천지연폭포(무태장어), 강원도의 정암사(열목어), 경상북도 봉화 석포면(열목어), 전라북도 무주 설천면(반딧불이)등 6곳, 조류의 번식지로는 여주 신접리, 무안 용월리, 양양 포매리(이상 백로 및 왜가리), 거제 학동리(팔색조), 전라남도 칠팔도(해조류인 바다제비 · 습새 · 칼새), 제주도 사수도(해조류인 흑비둘기 · 습새), 충청남도 난도(괭이갈매기), 경상남도 홍도(괭이갈매기), 경상북도 독도(해조류인 바다제비 · 습새 · 괭이갈매기), 전라남도 구굴도(해조류인 뿔쇠오리 · 바다제비 · 습새), 경기도 신도(노랑부리백로 · 괭이갈매기)등 11곳, 조류의 도래지로는 진천(왜가리),진도(백조),낙동강 하류(철새), 거제도 연안 (아비), 철원 천통리(철새), 한강 하류(재두루미)등 6곳이 있다.

동물의 특정 종으로서 천연기념물에 지정된 것으로는 장수하늘소(전국 일원),황쏘가리(한강),어름치(금강, 전국 일원), 무태장어, 크낙새, 딱오기, 황새, 떡황새, 백조(고니 · 큰고니 · 흑고니),두루미,재두루미,팔색조,저어새(저어새 및 노랑부리저어새), 느시, 흑비둘기, 흑두루미, 까막딱따구리, 수리류(독수리 · 검독수리 · 참수리 · 흰꼬리수리),매류(참매 · 붉은배새매 · 개구리매 · 황조롱이 · 매),올빼미와 부엉이류(수리부엉이 · 솔부엉이 · 칩부엉이 · 쇠부엉이 · 소쩍새 · 큰소쩍새), 기러기류(개리 · 흑기러기), 검은머리물떼새, 원앙, 노랑부리백로, 사향노루, 산양, 수달, 물범,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이상 전국 일원)등 31건이 있다.

식물

식물을 주체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노거수로 124건이며 1그룹씩 지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종류별로는 은행나무 19건, 소나무(처진소나무 · 반송포함)18건,느티나무(긴잎느티나무 포함)12건, 백송 · 이팝나무 · 향나무(뚝향나무포함)

각 8건, 곰솔 6건이며, 기타 5건이하의 것들로써 회화나무·왕버들(털왕버들 포함)·비자나무·푸조나무·후박나무(왕후박나무포함)·음나무·탱자나무·팽나무·망개나무·측백·곶향나무·갈참나무·회향나무·올벚나무·중국주엽나무·물푸레나무·다래나무·느릅나무·소태나무·송악·등나무·배롱나무·감탕나무·생달나무 등이 있다.

특정식물의 자생지를 지어한 것에는 미선나무(충북4곳)·왕벚나무(제주 2곳, 전남 대둔산 1곳)·향나무(경북 울릉도 2곳), 담팔수나무·녹나무·문주란·파초일엽(제주 각 1곳)·망개나무(충북 괴산군 1곳)·산닥나무(경남 남해도 1곳)·팔손이나무(경남 비진도 1곳)·측백나무(경북 안동시 1곳)·철쭉나무와 분치류(강원 반론산 1곳)등 18곳이 있다. 특정 식물의 북한지로는 전라남도 함평(붉가시나무), 전라남도 영광(참식나무), 백양사(비자나무)등 3곳이 있다. 나무숲(군락 포함)으로는 단일종인 경우 ‘달성의 측백나무수림’ 을 비롯한 18곳, 혼효림인 경우 전라남도 ‘주도의 상록수림’, 울릉도 ‘태하동의 솔송나무·섬잣나무·너도밤나무 군락’, 전라남도 ‘무안 청천리의 팽나무와 개서어나마의 줄 나무’ 를 포함하는 25곳이 있다. 기타 ‘제주도의 한란’ 과 경상남도 ‘함안 범주면의 늪지식물’ 이 있다.

지질·광물

동굴은 자연적으로 땅속에 생긴,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는 공간을 말한다. 보통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이상을 뜻한다. 자연적으로 생긴 깊고 넓은 큰 굴을 말하며, 석회암층이 빗물에 녹아 형성된 석회암동굴, 파식작용에 의한 해식동, 용암이 빠져나간 자리인 용암굴, 높은 암벽 밑에서 내무 공기 대류에 의해 바람이 부는 풍혈, 특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동굴이 있다.

한국의 유명동굴로는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환선굴), 영월 고씨굴, 단양고수동굴, 노동동굴, 온달동굴, 울진의 성류굴, 제주도 만장굴, 협재굴 등이 있다.

천연보호구역

현재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홍도천연보호구역을 포함하여 11건이며, ‘문화재보호법’ 제 25조(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에 의거,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홍도 천연보호구역 (‘65.4.7/제170호) : 희귀 동식물(231종의 동물, 543종의 식물) 및 자연경관 보호 전남 신안군
- ②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65.11.5/제171호) : 희귀 동식물(에델바이스, 금강초

룡, 산양, 사향노루) 및 자연경관 보호 강원 속초시

- ③ 한라산 천연보호구역('66.10.12/제182호) : 희귀 동식물(1,178종의 동물, 1,565종의 식물) 및 자연경관 보호 제주특별자치도
- ④ 대암산. 대우산 천연보호구역('73.7.10/제246호) : 희귀 동식물 및 위고층습지 보호 강원 양구군
- ⑤ 향로봉. 건봉산 천연보호구역('73.7.10/제247호) : 희귀 동식물(하늘다람쥐, 사향노루, 떡버들) 및 자연경관 보호 강원 인제군
- ⑥ 독도 천연보호구역('82.11.16/제336호) : 습새, 갯이갈매기 등 해조류 번식지 보호 및 자연경관 보호 경북 울릉군
- ⑦ 성산 일출봉 천연보호구역('00.7.18/제420호) : 희귀 연안 동식물(제주 분홍풀, 제주 나룻말) 및 자연경관 보호 제주특별자치도
- ⑧ 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00.7.18/제421호) : 희귀 연안 동식물(흑 비둘기, 연산호) 및 자연경관 보호 제주특별자치도
- ⑨ 차귀도 천연보호구역('00.7.18/제422호) : 희귀 연안 동식물(아열대성 해양 동식물) 및 자연경관 보호 제주특별자치도
- ⑩ 마라도 천연보호구역('00.7.18/제423호) : 희귀 연안 동식물(난대성 해양 동식물) 및 자연경관 보호 제주특별자치도
- ⑪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11.1.13/제524호) :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세진리. 이방면 안리, 대합면 주매리 일원에 있는 자연 늪지

북한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1949.4.29.)에 의거, 1993년 말까지 조사된 천연기념물은 모두 467점이며, 식물 90종 230여 점, 동물 68종 103점, 그리고 나머지가 지질, 지리부문이다. 천연기념물과는 별도로 자연보호구(6곳). 동물보호구(15곳). 식물보호구(14곳). 바다새번식보호구(6곳). 수산자원보호구(10곳)가 지정되어 있다.